



국제결제은행(BIS), 미국 양적완화정책 효과 평가

김세중 선임연구원

- 12월 11일 국제결제은행(BIS)은 미국과 영국의 양적완화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, 이들 정책이 채권 금리 인하에 효과적이었다고 밝힘.
 - 2008년 말 3,000억 달러 규모로 시행된 1차 양적완화정책은 10년에서 15년 만기채권의 이자율을 0.5%p 하락시키는 등 모든 만기에 걸쳐 평균적으로 0.3%p 정도의 이자율 하락을 유도했으며, 이는 기준금리를 2.0%p 인하한 것과 동일한 효과에 해당함.
 - 2010년 말 실시된 2차 양적완화정책도 최대 1.08%p, 모든 만기에 대해 평균 0.21%p 이자율 하락 효과를 유도한 가운데, 2009년 초 영란은행이 2,000억 파운드 규모로 시행한 양적완화정책은 최대 0.74%p, 평균 0.27%p의 이자율 인하 효과가 있었음.
 - 동 보고서는 평상시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정책이 전통적인 금리정책을 대체하기는 어렵다할지라도 이례적인 상황에서는 위기해결을 위한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주장함.

- 보고서는 또한 2011년 9월 발표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도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했으나 이자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양적완화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.
 - 보고서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2011년 9월 연준이 발표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(단기국채 매도, 장기국채 매입)이 단기국채 금리를 0.6%p 상승시키는 반면, 장기국채 금리는 0.22%p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함.
 - 그러나 추가적인 양적완화정책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매우 낮은 상황이고 정책의 참신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.
 - 또한, 양적완화정책이 인플레이션 기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, 중앙은행의 보유채권 규모가 커질 수록 출구전략 시행 시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함.

(Wall Street Journal, 12/11)